

뮤지컬 배우들 'SM행' 탑승 SM, 공연계까지 접수하나

유명 뮤지컬배우 10명과 전속계약 체결



뮤지컬 '인 더 하이츠' 공연 모습.

'아이돌 재국'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몇년간 노크해온 공연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계열사인 SM 컬처엔터테인먼트(C&C)를 통해 유명 뮤지컬배우 10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강필석·김재범·성두섭 등 이미 뮤지컬계에서 팬덤을 구축한 배우들부터 임병근·박정복·윤나무 등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배우들까지 포함됐다. 윤소호·정하루·박진·김여진 등 주목받는 블루칩 역시 함께 한다.

뮤지컬계에서 이미 활발히 활동하는 아이돌 라인업에 뮤지컬계 주축 배우들까지 가세하면서 SM이 공연계 접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M, 뮤지컬 진출기
SM이 뮤지컬을 처음 선보인 건 2008년 '제너두'다. 자회사이자 공연·뮤지컬 엔터테인먼트사인 SM아트컴퍼니의 창립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뮤지컬이었다. 롤러 스케이트 등을 등장시키는 등 색다름으로 주목 받았지만 흥행이나 완성도, 출연 배우들의 기량 등 어떤 부분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후 SM은 소속 가수의 특성에 맞춰 작품을 선정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0년 일본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태양의 노래'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의 주인공에 소녀시대 태연을 출연시키는 등 맞춤형 전술을 펴냈다. 공연제작사 엠뮤지컬컴퍼니(현 엠뮤지컬아트), PMC퍼러덕션 등과 협업하며 뮤지컬을 배워가는 전략도 동시에 구사했다.

엠뮤지컬컴퍼니의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공동 기획하기도 한 SM은 SM C&C가 처음 제작한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을

통해 뮤지컬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 호평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SM C&C가 제작한 두 번째 뮤지컬 '인 더 하이츠' 라이선스로 대박을 냈다.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뮤지컬 '해밀턴'의 린 마누엘 미란다가 2008년 선보인 작품이다.

◇SM 뮤지컬배우 풀 투 트랙 체제... 뮤지컬배우, SM행 왜?
SM 아이돌의 뮤지컬 진입 초반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실력보다는 인기를 앞세워 무대 진출을 꾀하고, 몸값까지 높게 받는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실력이 출중한 아이돌 겸 뮤지컬배우가 많아진 상황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정된 보컬의 슈퍼주니어 규현,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함을 갖

춘 천장지희 출신 리아, '헤드워'의 이초학을 소화할 정도로의 안정된 가창력과 예쁜 외모를 갖춘 제이민 등이 앞장서고 있다. '비림과 함께 사라지다'와 '말머미아!'의 소녀시대 서현도 유망주다. 사이니키는 연극 '지구를 지켜라'로 연극계 매진 활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 아이돌들은 주로 대형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다. SM의 이번 뮤지컬배우 대거 영입은 장르의 다양화를 위한 기반으로 풀이된다. 영입된 배우들은 대형 뮤지컬의 주요연급은 물론 소극장 뮤지컬, 연극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탄탄한 기량의 배우들이다. SM이 공연을 제작하고 기획하는데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아이돌과 뮤지컬배우들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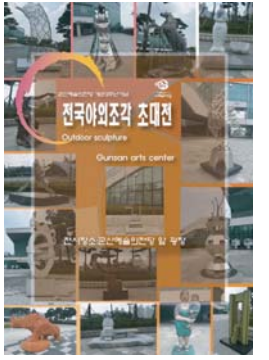
배우들은 SM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뮤지컬계는 이미 전문 매니지먼트 기획사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흥광호 등을 보유한 PL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블루스테이지, 더 프로액티브, 장인엔터테인먼트, 샘컴퍼니, EA&C, 포트러, R&D웍스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톱 뮤지컬스타 조승우가 PL에서 독립해 차린 곳맨스토리에는 탄탄한 기량의 양준모가 합류했다.

◇SM 의 공연계 진출 활발한 연예 기획사는?
우선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띈다. 톱 영화배우들을 대거 매니지먼트하는 이 회사는 씨제스컬처라는 공연제작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특히 조승우와 뮤지컬계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JYJ' 김준수와 톱 뮤지컬배우 정산아를 앞세워 뮤지컬 제작 때마다 공연계를 뚫어주고 있다. 가창력이 뛰어난 강홍석도 이 회사 소속이며 창작 초연을 앞둔 '도리안 그레이'에 출연하는 신인 배우 홍서영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점차 뮤지컬배우들을 총원하고 있다.

SM과 함께 3대 기획사로 꼽히는 JYP엔터테인먼트는 원더걸스 예은, 2PM 준케이 등 아이돌들을 꾸준히 뮤지컬에 출연시키고 있다. 뮤지컬 '디셈버' '잭더리퍼'를 통해 기대주로 거듭난 김예원도 이 회사 소속이다. 또 다른 3대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캣츠'에 박병의 대성, '쇼나기'에 박병의 또 다른 멤버 승리가 출연한 이후 이 장르에 아직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서태이 출신의 서태지컴퍼니 출신인 김민석 대표가 설립한 공연제작사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뮤지컬 '베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3주년 '전국 야외조각초대展' 개최



개관 3주년을 맞이한 군산예술의전당이 '전국 야외조각초대展'을 개최해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전국 조각작가들의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담은 30여점의 작품을 상·하반기 2차례 걸쳐 전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작가 15명의 멋진 작품들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작가 15명의 새로운 작품들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출신의 김상호, 김준현, 권성수, 김성호 등 15명이 참여해 스테인리스스틸, 화강석, FRP, 오석, 알루미늄 파이프 등 다양한 소재를 지닌 작품들로 구성해 더욱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015년도부터 '휴식', '3인3색' 야외조각전을 진행해 한정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개관 3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의전당으로 거듭나고자 야외 조각분수와 실개천 등 조경과 잘 어울리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기쁘게 조각적인 만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아트 힐링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한국예총 문화명인에 김상휘 박사 선정

전통철학 풍수지리전문



한국예총인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하철경)는 제5회 한국예총·문화명인 전통철학 풍수지리전문에 고창 출신 풍수학자인 김상휘 박사(사진)를 선정했다.

유년시절부터 남달리 풍수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김 명인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학과 풍수를 각각 전공하였다. 지난 2003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국예총문화·예술명인선정위원회는 김상휘 박사 선정에 대해 "김명인이 40여 년 동안 풍수지리 학문에 매진한 점과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박사학위를 문에 '자연 풍수조화론 4단 연계법'이라는 독특한 풍수이론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인은 한국예총대의협력위원장, 전북예총전문위원, 전주예총전문위원, 전주 풍류학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풍수기행모악산, 풍수담론, 도시개발풍수론, 건지산풍수론, 승암산풍수론, 풍수기행 정각목심승지, 계룡산풍수용역,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민족문화연구방법 등이 있다. /정해은 기자



소리지존 공연 모습.

전주전통문화관, 오늘 '이열치열' 콘서트

전주전통문화관은 한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이열치열' 콘서트를 12일 오후4시, 13일 오전11시, 14일 오후6시 3회에 걸쳐 놀이마당에서 연다.

이번 공연에는 소리지존과 지무단, 전주 기잡놀이보존회가 참여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소리지존의 공연은 퓨전 타악퍼포먼스 이들을 신명나는 타악연주와 더불어

LED, ICE 등을 이용한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지무단은 검의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을 극대화한 '여우의 눈물'과 검의 이면인 따뜻하고 익살스런 모습을 담은 '광대'를, 전주기잡놀이보존회는 전북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기잡놀이를 각기 공연한다. 문의 280-7042. /정해은 기자

군산·서천 지역 교류강화·화합한마당 행사 '금강야행(夜行)콘서트' 14일 근대역사박물관서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군산·서천 화합 한마당 '2016 금강야행(夜行)콘서트'가 오는 14일 저녁 7시 30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2016 금강야행(夜行)콘서트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으로 강운정, 나비, 투포케이, 양혜승, 이순정, 사인방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군산·서천 행정협의회가 10년 만에 재개되고, 양 시·군간 행정, 문화, 체육, 관광 등 교류강화 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군산야행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인기 가수 공연 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말 예정된 동백대교의 부분 개통과 양 시·군간 다방면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콘서트는 군산과 서천간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slab.com/>

<2016년 8월 12일>

<p>▶ 쥐띠</p> <p>48년생: 이득이나 번승을 갖기에 좋은 운. 6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인덕은 있는 운이나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우니 주의하라.</p>	<p>▶ 소띠</p> <p>49년생: 문서운이 들어왔다. 61년생: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상의 도움을 받아라. 73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큰 재물은 아니니 욕심은 삼가라. 85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p>	<p>▶ 호랑이띠</p> <p>5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4년생: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운. 86년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고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운이다.</p>	<p>▶ 토끼띠</p> <p>51년생: 재물에 탐욕이 지나치면 재앙이 발생한다. 63년생: 구설수로 인해 마음 고생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p>
<p>▶ 용띠</p> <p>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가 예상된다. 64년생: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상이나 노력만 수반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나 양보가 필요하다. 88년생: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p>	<p>▶ 뱀띠</p> <p>53년생: 작은 일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다. 65년생: 타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7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매사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라. 8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p>	<p>▶ 말띠</p> <p>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 66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실수를 불러오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이다.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p>	<p>▶ 양띠</p> <p>55년생: 지나친 과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67년생: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운. 79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허물없이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동성보다는 이상의 조언을 따라라.</p>
<p>▶ 원숭이띠</p> <p>56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 68년생: 대의에 임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문제가 없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역량이 많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p>	<p>▶ 닭띠</p> <p>57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고리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 93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갈 운이다.</p>	<p>▶ 개띠</p> <p>4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거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처음에는 굴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p>	<p>▶ 돼지띠</p> <p>47년생: 다른사람 말만 듣고 투자를 감행하는 일은 삼가라. 59년생: 지나친 호의를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겉은 화려해 보이는 듯하나 속은 허하니 내실에 집중하라.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p>